

#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임석희\* · 송주연\*\*

## The Trend of Foreign Professional Workers' Influx and Their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South Korea

Yim, Seokhoi\* · Song, Juyoun\*\*

**요약** :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 국제인구이동의 한 경향은 단순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초국적 이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 이후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그 수가 5만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증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기체류자에 비해 장기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별로는 외국어 강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투자, 특정직업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문직 이주자가 많다.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 이주자도 적지 않지만 2003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신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가 가장 많지만, 외국어 강사의 경우 북미 지역 출신이 많은 것처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이 크고 공업지역인 거제도나 같은 남동연안지역에도 적지 않게 분포한다. 적응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직 이주자의 한국인과의 교류는 거주지역보다는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이며 한국에 영구 정착 의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비해 이들은 상대적 사각지대에 있다.

**주요어** : 인구이동, 국제인구이동, 초국적 이주, 외국인 이주자, 전문직 이주자

**Abstract** : In recent years, international migration of professional workers is significantly increasing as globalization has been deepened more and more.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 for this case. Immigration of professional workers have steadily increased since 2000 in Korea, and the number reached approximately to 50,000 in 2009. In addition, it is a major trend that immigrants of short-sojourn are decreasing and ones of long-sojourn increasing. Our research shows that foreign language instructor has the greatest number of foreign professional immigrants. The next is professional immigrants related to business-activities. There are considerably entertainers, but they have greatly decreased since 2003. Majority of foreign professional immigrants settle down in a few metropolises. Especially, they reside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outheast coastal region. Professional immigrants trend to do with Korean on the base of their offices rather than residential communities in terms of adaptation, and they do not have strong will to reside permanently in Korea. Moreover, they are located at a blind spot of Korean government's foreign immigrant policy, comparing to foreign workers and female marriage immigrants.

**Key Words** :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transnational migration, professional immigrants, foreign professional workers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는 점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본과 상품에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급속한 세계화 현상과 함께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들을 볼 수 있을 만큼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증가는 자연스레 학문적·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은 1992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필두로 단순기능인력 위주로 운영되어 왔고, 그간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논쟁에 매몰되어<sup>1)</sup>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shyim@daegu.ac.kr)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Post-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urbangeo@daegu.ac.kr)

정작 국내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실정이다. 주목할 것은 최근 노동력의 국제이주가 상층회로와 생존회로를 통한 이주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된 이주 흐름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위해 이동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주 흐름인 '상층회로(upper circuit)'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이주 흐름인 '생존회로(survival circuit)'이다(김현미, 2005).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지식과 지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해외 이주는 늘고 있지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약 90%가 단순기능인력으로 양적으로는 외국 인력이 늘고 있지만 그 인력의 질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sup>. 뿐만 아니라 2009년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장·단기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5만 명을 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여 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직 이주자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흡했던 까닭은 그 규모가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에 비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이들의 국제 이주가 사실상 '눈에 띄지 않는(invisible)' 현상이라는 데 있다. 전문직 이주자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짧고, 저임금 이주 노동자처럼 크게 가시화 된 문제를 양산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유치와 확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개인보다는 이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실질적인 시장 행위자인 기업과 학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전문직 이주자들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이 경쟁력의 근원인 현대 사회의 조류에 부응하여, 향후 전문직 이주자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로 유입한 전문직 이주자들의 기초적인 사항을 통해 향후 이들에 관한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전문직 종사자의 국제 이주 현상을 몇 가지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전문직 이주자의 이주현황을 증가추이와 더불어 비자유형별, 법적 지위별, 성별·국적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국내로 유입한 후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리적인 분포를 분석하고, 넷째, 전문직 이주자의 적응과 관련해 정책 및 지원기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

전문직 이주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합의된 정의는 없다. 따라서 전문직 이주자를 연구하기에 앞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들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전문직'을 분류할 때는 교육수준과 직업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과 '외국인 이주자'라는 두 가지 성격을 고려하여 직업 종류가 반영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의 체류자격 중 E계열에 속하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해당 직종에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외국인력으로 간주하고 '전문기술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 밖에 주재(D-7)와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도 전문직종에 상응한다고 보고 전문직 이주자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목적별로 보면, 이들은 다시 1)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 2)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 3) 외국어 강사, 4)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구 자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입국 통계연보와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출입국 통계연보와 통계월보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국내 전문직 이주자의 시계열적 추이 및 변화, 현황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자료를 통해서 이들의 지리적 분포를

표 1. 전문직 이주자의 유형

구 분	비자유형	채류자격 해당자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	주재 (D-7)	-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회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지점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사람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려는 사람
	기업투자 (D-8)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외국어 강사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예· 스포츠 관련 전문직	예술홍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출입국관리법령집 참조 제작성.

분석하고 지도화하였다. 또한 주요 대도시 내 전문직 이주자의 국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법무부의 장기채류 외국인에 대한 원자료(내부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 외에도 전문직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같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 2. 전문직의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적 배경

자발적이든 또는 강요된 이동이든 국제이주라는

현상 자체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십 수 년간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국제 이주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이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국제 이주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이주자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도 세계화 또는 초국가주의가 주요한 설명의 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또는 초국가주의와 같은 다소 포괄적 개념의 설명 틀만으로는 전문직의 국제이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가려내기 어

렵다. 이런 점에서 전문직의 국제이주에는 전통적인 두뇌유출론을 비롯해 기업 국제화론, 문화적 통합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경험적 고찰에 앞서 그 고찰의 이론적 배경으로 관련 개념 및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세계화와 초국가주의

흔히들 말하는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초국적 기업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인 생산체계 형성에 기반을 둔다. 이와 같은 생산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자와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국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고 있으며(Robertson, 1992), 지난 20~30여 년 동안 지속된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이제 노동력까지도 대규모로 국제적인 이동을 하고 있다. 즉, 자본에 의해 고용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거대한 자본의 생산체계 속에서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급속도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연결된 국제이주의 유형은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이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저임금 이주노동자와 같이 경제적 동기에 따른 노동자 계층의 국제적 이동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의 세계화(globalization from below)였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생존회로(survival circuit)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세계화(globalization from above)라는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행위자이다. 이에 반해 글로벌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상층회로(upper circuit)에서 주로 이동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이주는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 전략적 행위자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전문직 이주자는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가져오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다.<sup>3)</sup>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의 국제이주는 전 지구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역으로 이들은 세계화를 더욱 활발하게 이끄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Iredale(2001)

은 전문직 이주자의 세계화 현상에 기여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요인들로 첫째, FTA, EU 등과 같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 둘째, WTO와 GATS의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 셋째,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와 같이 유형별 전문직 집단의 국제적 활동 증가, 넷째, IT 산업 종사자와 같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새로운 고숙련 노동시장의 출현 등을 꼽았다.

한편, 최근에는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sup>4)</sup>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이주 현상을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로 바라보려는 새로운 이론적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초국적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주자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현상이 과거 처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현실 세계에 주목할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이주가 발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두 사회가 하나의 사회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즉, 초국가주의는 오늘날의 국제 이주자, 특히 그들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와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 및 주체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초국가주의와 세계화의 개념은 국가를 벗어나 초국경적 현상을 설명하는 점에서 중첩되기도 하지만 세계화라는 말에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들이 관계되어 있지 않다. 반면 초국가주의는 이주자들에 내재된 사회·공간적 구조, 사회 네트워크의 국제적 분산, 정체성 형성의 유연성 등을 다루는데 유용하다(Bailey, 2001). 구체적으로 초국가주의는 이주민들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사회, 경제, 문화적 연계성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transnationalism'에서 'trans-'라는 접두어에는 단지 경계를 넘어선다는 뜻 외에 그러한 이동을 통해 공간과 경계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모름지기 초국가주의는 지구화 시대 초국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동과 흐름에 이론과 경험적 연구의 초점을 둔다(Yoon, 2008).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간과 경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들은 저임금 이주노동자 보다는

고소득의 전문직 이주자들이 해당된다.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위해 타 국가로 이주하지만, 고소득 전문직 이주자는 글로벌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위해 이동함으로써 초국가적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직의 국제이주는 세계화 내지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형태의 국제이주에 비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전문직의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

### (1) 기업 국제화론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의 국제적 이동은 기업이 국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국제화, 자율화 추세에 따라 각국 자본 시장 간의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국제 간 자본거래가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국적기업 또는 초국적기업의 형태와 해외 직접투자 전략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수급의 측면에서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의 국제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 국제화란 국내시장에서 처음 활동하기 시작한 기업이 점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성장·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된다(Johanson and Wiedersheim-Paul, 1975). 또한 기업의 국제화는 변화하는 기업여건과 환경에 적응하여 기업이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제경영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Johanson and Vahlne, 1971). 즉, 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국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국제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기업 내부의 여건 및 기업 외부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국제사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국제기업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국제화됨에 따라 최근 해외연구개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뿐만

아니라 연구·기술관련 전문직의 국제이주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다국적기업들이 핵심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자신의 모국에서 수행하고, 단지 성숙단계에 이른 기술만을 현지국에 이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등장 및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학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의 글로벌적인 외부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기술의 새로운 원천 발굴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OECD, 1998).

### (2) 두뇌유출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고급두뇌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일방적으로 이동해가는 현상인 두뇌유출(brain-drain)은 전문직 이주자 중 주로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의 이주와 관련이 있다. 두뇌유출의 대상이 되는 고급인력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 이주자들이 두뇌유출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언급되어왔다.

처음 두뇌유출 이론은 영국의 고급두뇌들이 미국 등의 국가로 이주해 가는 것을 지칭하는데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는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의 고급두뇌들이 임금 및 생활환경이 월등한 선진국들로 이주해가는 현상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그 결과 두뇌유출은 단순히 경제적 조건에 의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두뇌를 '밀어내는 힘'과 받아들이는 국가의 '끌어당기는 힘'이 정치·사회·문화적 상황, 가족문제, 노동조건과 환경, 이민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문만용, 2006).

선진국 사이에서도 두뇌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두 국가 간의 임금수준이 같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진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면 두뇌유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이규용 등, 2005). 가령, 한국과 미국의 임금수준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서는 한국 출신 전문직 이주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서 그들의 임금이 능력대로

정해지지만,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임금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미국에서 돌아오는 한국 출신의 전문직 이주자의 능력 평균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급인력의 이동이 보다 역동적(dynamic)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목하여 기존 두뇌유출에 대해 역동적인 고급인력 이동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급인력 순환(brain circulation)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전문직 종사자의 해외 이동을 단순히 고급 인적 자원을 빼앗기는 것이라기보다 이들이 자신의 나라에 되돌아와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입체적인 개념 틀이다. 기존의 두뇌유출 개념의 경우 자국의 전문인력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 반면, 고급인력 순환 개념은 고급인력의 유입과 유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다 과정적이고 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송하중 등, 2004).

### (3) 문화적 통합론

전문직 이주자 중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과 외국어 강사의 국제적 이동은 범세계적인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문화적 통합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세계 금융자본의 위력이 국민국가의 위력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국민국가에 의한 '문화적 경계짓기'가 불분명해진 지금이다. 이제 문화는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외국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동시에 한국 고유의 문화도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문화의 퓨전화가 생성되고 있다(홍석준, 2004). 이로 인해 국내에는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이 증가하고, 세계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인한 개인적 대응으로 외국어 지식이 요구되면서 원어민 외국어 강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교류는 공간적 차원의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문화의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영토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상실되면서 문화교류와 문화통합의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Canclini(1995)는 탈지역화(delocalization)

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국가 및 세계 공간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활발한 문화교류의 현상이 단순히 지역을 벗어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탈지역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화산업에서 초국민적인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일방적인 획일화가 아니라, 지역화를 세계화 전략으로 선택할 때 보다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세계화 과정과 더불어 지역화 역시 강화되면서 재지역화(relocalization)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 과정과 더불어 지역화 역시 강화되는 역설적이고 양면적인 과정을 Robertson(1992)은 세계지역화(glocalization)로 규정한다. Robertson의 이론을 수용하는 Beck(1997) 역시 세계지역화를 전지구적인 사회적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세계화의 한 과정으로서 지역문화들 간의 응집과 중첩이 결과한 것으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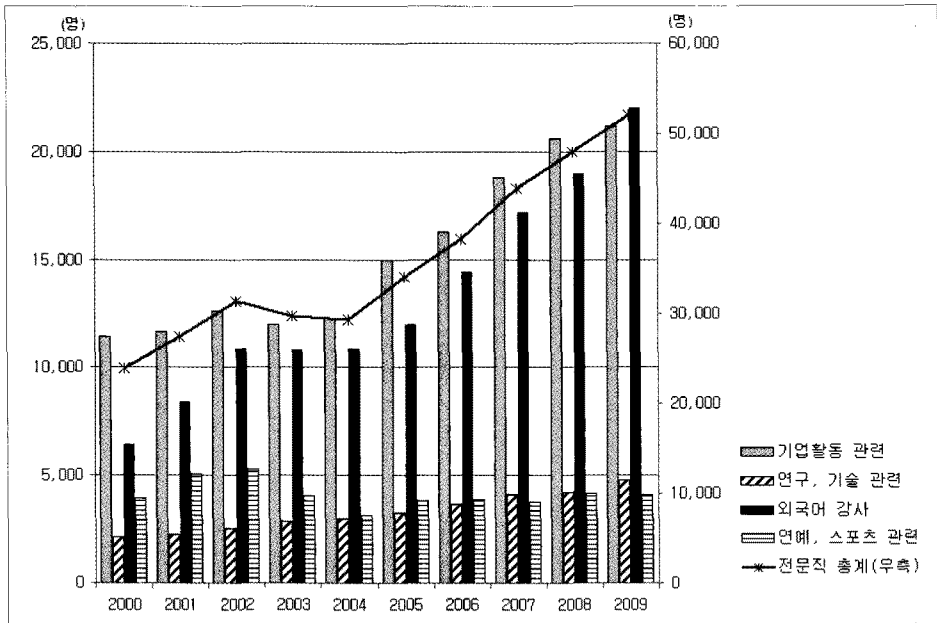
## 3. 전문직의 이주 현황

### 1) 전문직 이주자 증가 추이

최근 인구의 국제이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문직 이주자의 국제 이주도 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2009년 현재 약 7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입국자 수는 무려 11만여 명에 이르렀다. 지난 2000년 입국한 전문직 이주자 수는 71,619명이었으며, 2005년 103,295명, 2009년 113,1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할 때에는 입국목적에 따라 해당 사증(VISA)을 발급받게 되며 체류기간에 따라서는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91일 이상의 장기체류 사증을 발급받는다. 그 중 전문직 이주자의 체류 자격은 대부분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거나 취업활동에 준하기 때문에 전문직 이주자의 비율을 장기 체류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이후 전문직에 종사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2년~2004년 사이 잠시 주춤하다 2005년 34,055명, 2006년 38,265명, 2007년 43,903명, 2008년 48,003명, 2009년 52,073명으로 꾸준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그림 1. 장기체류 전문직 이주자의 추이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문직 이주자의 유형 중에서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과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은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과 외국어 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면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이주자의 증가에는 이들 두 집단의 유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

전문직 이주자가 이같이 증가하는 데에는 세계화와 초국가주의의 배경 하에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전문직에 대한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인력부족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발표한 보고서 '아시아의 인재 위기(Asia's Skills Crisis)'에 따르면 아시아의 취약한 인재 인프라 난은 아시아의 성장을 지체시킬 수 있는 힘겨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급속한 성장과 소득 향상에 힘입어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교육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Park, 2008).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급증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

책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의 전문직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및 정부의 유치 전략이 아시아 각국의 경쟁 속에서 좀 더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전문직 이주자의 증가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전문직 이주자의 유형별 현황

(1) 비자 유형별 현황

국내로 이주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변화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전문직에 해당하는 각 10개의 체류 자격을 단기와 장기체류자 모두 포괄하여 <표 2>와 같이 분석하였다. 대체로 전문직 이주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재(D-7)와 기술지도(E-4)의 경우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술지도(E-4)는 2000~2009년 사이 연구(E-3)가 834명에서 2,066명으로 2.5배가량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연구(E-3)와 기술지도(E-4)는 국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자연과학 분야 및 산업상의 고도기술 부분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술지도(E-4)는 연구개발 활동 없이 특수한 기술만을 제

표 2. 체류자격별 전문직 이주자의 변화 추이

(단위: 명)

체류자격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	주재 (D-7)	2,001	1,801	1,640	1,519	1,399	1,471	1,524	1,483	1,413	1,492
	기업투자 (D-8)	6,171	6,805	7,178	5,902	6,041	7,107	7,300	8,109	8,356	7,907
	무역경영 (D-9)	931	884	1,290	1,409	1,487	2,164	2,150	2,431	2,872	3,282
	특정직업 (E-7)	3,471	2,920	3,323	3,471	3,575	4,533	5,729	7,175	8,405	8,896
	소계	12,574	12,410	13,431	12,301	12,502	15,275	16,703	19,198	21,046	21,577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	교수 (E-1)	725	736	826	952	955	1,094	1,159	1,279	1,589	2,056
	연구 (E-3)	834	967	1,221	1,411	1,601	1,765	2,095	2,318	2,057	2,066
	기술지도 (E-4)	363	217	212	219	191	199	166	174	121	197
	전문직업 (E-5)	411	423	422	363	298	303	351	414	530	536
	소계	2,333	2,343	2,681	2,945	3,045	3,361	3,771	4,185	4,297	4,855
외국어 강사	회화지도 (E-2)	6,831	8,881	11,524	11,344	11,296	12,439	15,001	17,721	19,771	22,642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	예술홍행 (E-6)	5,243	6,979	6,627	4,671	3,813	4,452	4,510	4,421	4,831	4,305
계		26,981	30,613	34,263	31,261	30,656	35,527	39,985	45,525	49,945	53,378

주: 장기, 단기체류자 포함.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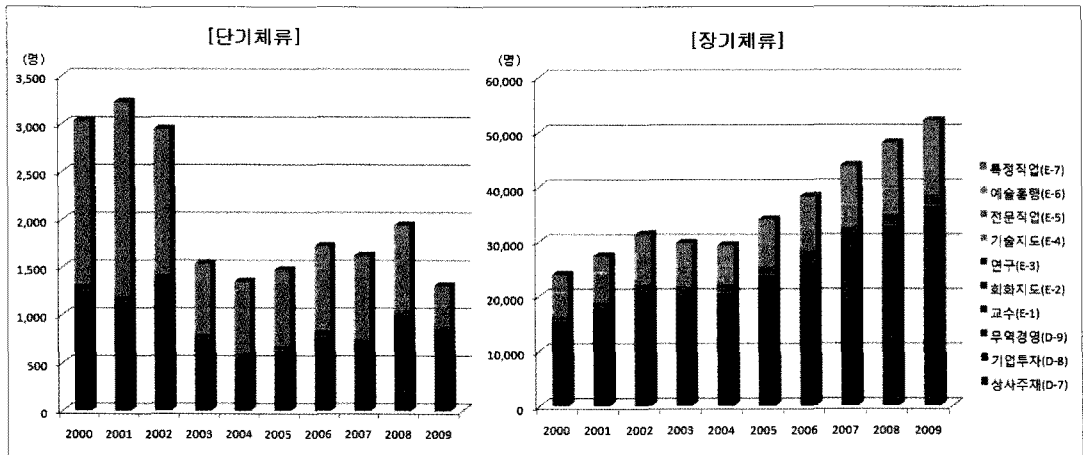
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을 통한 기술이전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예술홍행(E-6)의 경우는 2002년까지만 해도 6천여 명 수준에 이르던 것이 2003년 이후 대략 4천여 명의 수준으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2003년부터 '무용수'로 공연추천이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홍행(E-6) 체류자격 중 공연추천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의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직 이주자를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로 구분해봤을 때 더 두드러진다. 단기 체류하는 전문직 이주자의 수는 2002년 2,983명에서 2003년 1,58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306명을 보이고 있다(그림 2).

2003년 단기체류자의 수가 감소한 것은 예술홍행(E-6) 자격 감소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 시점이 정부의 '유용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무회 대책'에 의한 무용수 비자 발급 중단 시기와 일치한다. 회화지도(E-2)는 단기체류자 중 예술홍행(E-6)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다 2008년부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 두 집단은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체류 자격은 불법체류자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투자(D-8) 자격은 단기체류자가 많았으나 점차 장기체류로 전환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회화지도(E-2)의 경우도 최근 장기로 체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그림 2. 단기체류, 장기체류 전문직 이주자의 비교

(2) 법적 지위별 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는 만큼 해마다 소위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외국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경우 미등록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전문직 이주자는 체류자격 자체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고, 단순히 생존회로에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2009년 12월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연수취업(E-8)의 경우 전체 11,307명 가운데 11,256명이 미등록자로 불법체류율이 무려 99.5%에 달하였다<sup>9)</sup>. 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 이주자 전체의 불법체류율은 5.5%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해당 체류자격 대부분도 10% 미만의 낮은 불법체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이주자 내에서 예술홍행(E-6)의 경우는 불법체류율이 외국인 전체의 불법체류율(15.2%) 보다 훨씬 웃도는 31.2%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예술홍행 자격을 가진 외국 연예인 중 대다수가 유흥업소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불법업소나 폭력조직 등에 얽매이기

표 3. 전문직 이주자의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율

(기준: 2009년 12월 31일)

구 분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외국인 전체	990,522	177,955	15.2%
주 재(D-7)	1,461	31	2.1%
기업투자(D-8)	7,234	673	8.5%
무역경영(D-9)	3,265	17	0.5%
특정활동(E-7)	8,172	724	8.1%
교 수(E-1)	2,051	5	0.2%
연 구(E-3)	2,056	10	0.5%
기술지도(E-4)	192	5	2.5%
전문직업(E-5)	518	18	3.4%
회화지도(E-2)	22,547	95	0.4%
예술홍행(E-6)	2,961	1,344	31.2%
전문직 합계	50,457	2,922	5.5%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12월 통계월보

쉽기 때문이다. 원래 예술홍행 사증은 국내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전문직 이주자의 자격으로 간주하여 발급하는 사증이었으나, 현재는 저개발국 출신의 생계를 목적으로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이들에게 발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문직 이주자의 사증 유형인 E계열 내에서 예술홍행을 법률적으로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표 4. 전문직 이주자의 성별 현황

(단위: 명, %)

	기업활동 관련	연구·기술 관련	외국어 강사	연예·스포츠 관련
남	18,367(85.1)	4,026(82.9)	12,739(56.3)	932(21.6)
여	3,210(14.9)	829(17.1)	9,903(43.7)	3,373(78.4)
합계	21,577(100.0)	4,855(100.0)	22,642(100.0)	4,305(100.0)

주: 장기, 단기체류자 포함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연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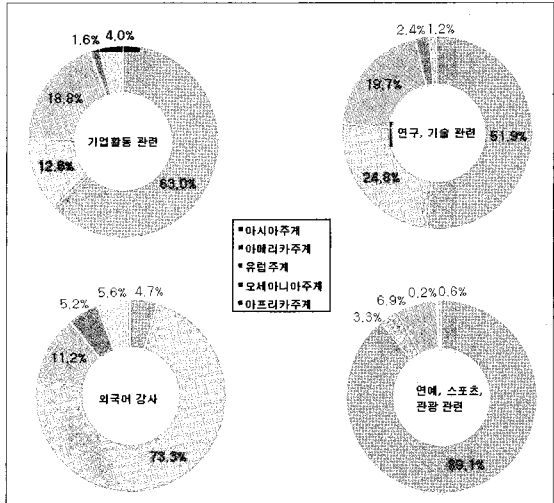
(3) 성별·출신대륙별 현황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직 이주자의 성별 분포 역시 남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그러나 전문직 이주자의 네 가지 유형에서 성별 분포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표 4).

우선 남성의 비율이 높은 유형은 기업활동 관련, 연구·기술 관련, 외국어 강사 분야이다. 이 중 기업활동에서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기술 관련 분야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약 3,100명이 더 분포하고 있다. 외국어 강사의 경우는 남·여 간 약 2,800명의 수적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 남·여 간의 격차가 가장 작은 유형이다.

유일하게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연예·스포츠 관련 분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종 내 여성화 되어있는 호텔유흥(E-62) 종사자<sup>6)</sup>의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9년 현재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은 모두 4,305명으로 이 중 호텔유흥(E-62)은 3,605명(83.7%)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문직 이주자는 성별로 직업군이 다소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뿐만 아니라 전문직 이주자들의 출신 대륙에 따라서도 분화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문직 이주자의 출신대륙은 여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직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그 특성에 따라 대륙별로 특화되어 있다.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은 아시아가 많은 가운데 무역경영(D-9)은 유럽주계로 특화되어 있고, 연구·기술활동 관련 전문직은 연구(E-3)가 아시아주계, 기술지도(E-4)가 아메리카주계로 특화되어 있다. 또한 회화지도(E-2)는 국내 영어교육과



주: 장기, 단기체류자 포함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출입국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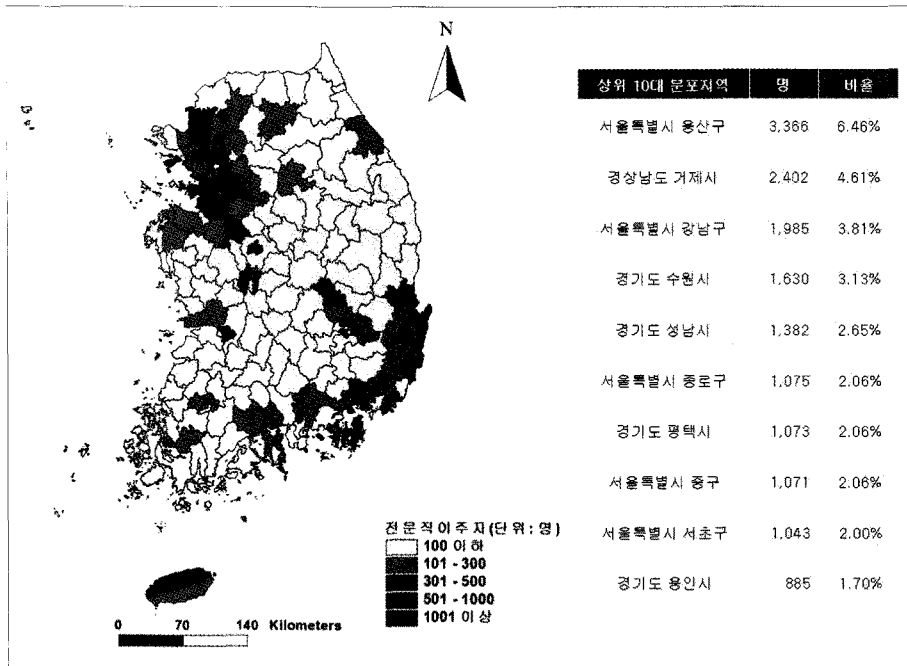
그림 3. 전문직 이주자의 출신대륙별 현황

관련하여 아메리카주계가,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은 아시아주계로 특화되어 있다. 특히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은 아시아주계 중에서도 필리핀 국적의 이주자가 3,352명으로 전체 아시아주계 3,834명 중 87.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

4. 전문직 이주자의 지리적 분포와 특성

외국인 이주자가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들은 다시 국내의 특정 지역에 정착한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해나가게 된다. 그중 지식노동력인 전문직 이주자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다른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문직 이주자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해보았다.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크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12월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그림 4. 전문직 이주자의 분포

계 두 가지로 국내의 전반적인 분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는 2009년 12월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자료를 사용하였고, 주요 대도시별·국적별 분포에는 2007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한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법무부 원자료는 각 외국인 개인별로 연령과 체류자격, 성별, 국적, 구 단위의 거주지 및 근무지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1) 전문직 이주자의 전국적 분포 현황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870,636명, 전문직 이주자는 52,073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 이주자 전체의 지역 분포는 다른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공업지역에 교통축을 따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좀 더 공간적으로 집중해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상위 10대 분포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5곳, 경기도가 4곳을 차지하여 모

두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전체 전문직 이주자 중 4.6%에 달하는 2,402명이 분포하고 있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분포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은 지역의 특성상 조선소와 관련된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 중 2,139명(89.1%)은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에 해당한다(그림 4).

2) 전문직 이주자의 유형별 분포 특성

전문직 이주자의 지리적 분포를 이들의 직업 특성과 관련해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 외국어 강사,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 네 가지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표 5, 그림 5).

전반적으로 유형별 전문직 이주자의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의 거주지는 기업통제기능과 고차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용산구, 강남구, 종로구 등의 중심업무지역과

표 5. 전문직 이주자의 유형별 상위 분포지역

(단위: %)

	기업활동 관련직	연구·기술직 관련직	외국어 강사	연예·스포츠 관련직
1	서울 용산구 (11.46)	경기 수원시 (12.27)	서울 용산구 (3.23)	경기 동두천시 (17.71)
2	경남 거제시 (10.10)	서울 강서구 (10.33)	서울 강남구 (2.91)	경기 평택시 (14.03)
3	서울 강남구 (5.88)	대전 유성구 (5.70)	경기 성남시 (2.91)	인천 중구 (4.09)
4	서울 중구 (4.23)	서울 관악구 (3.69)	경기 수원시 (2.68)	경기 의정부시 (3.92)
5	서울 종로구 (3.86)	서울 서대문구 (3.19)	경기 용인시 (2.48)	경남 거제시 (3.48)
6	울산 동구 (4.38)	서울 동대문구 (2.92)	경기 고양시 (2.27)	서울 용산구 (3.04)
7	서울 서초구 (3.02)	경기 성남시 (2.73)	대구 수성구 (1.67)	전북 군산시 (3.04)
8	경기 성남시 (2.82)	경북 포항시 (2.69)	대전 서구 (1.62)	제주 제주시 (2.79)
9	서울 마포구 (2.43)	서울 성북구 (2.65)	서울 서초구 (1.58)	부산 동구 (2.74)
10	서울 서대문구 (2.15)	경기 용인시 (2.46)	경기 부천시 (1.58)	대구 달서구 (2.30)
전체(명)*	21,179	4,793	22,018	4,083

주: \*상위 10곳을 포함한 유형별 전문직 이주자 전체입(장기체류자).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2009년 12월.

조선 사업이 발달한 거제, 울산 등 지방의 특수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연구·기술 활동 관련 전문직 이주자는 대학과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등에서 두드러진다. 셋째, 외국어 강사는 주로 외국어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수도권 및 지방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전문직 이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적 집중도가 낮은 편이다. 넷째, 연예·스포츠 관련직은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서울의 유흥가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예·스포츠 관련직의 대부분이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이주한 외국인이며, 이들의 경우 주한 미8군 영내클럽과 관광지의 호텔 및 극장,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만 공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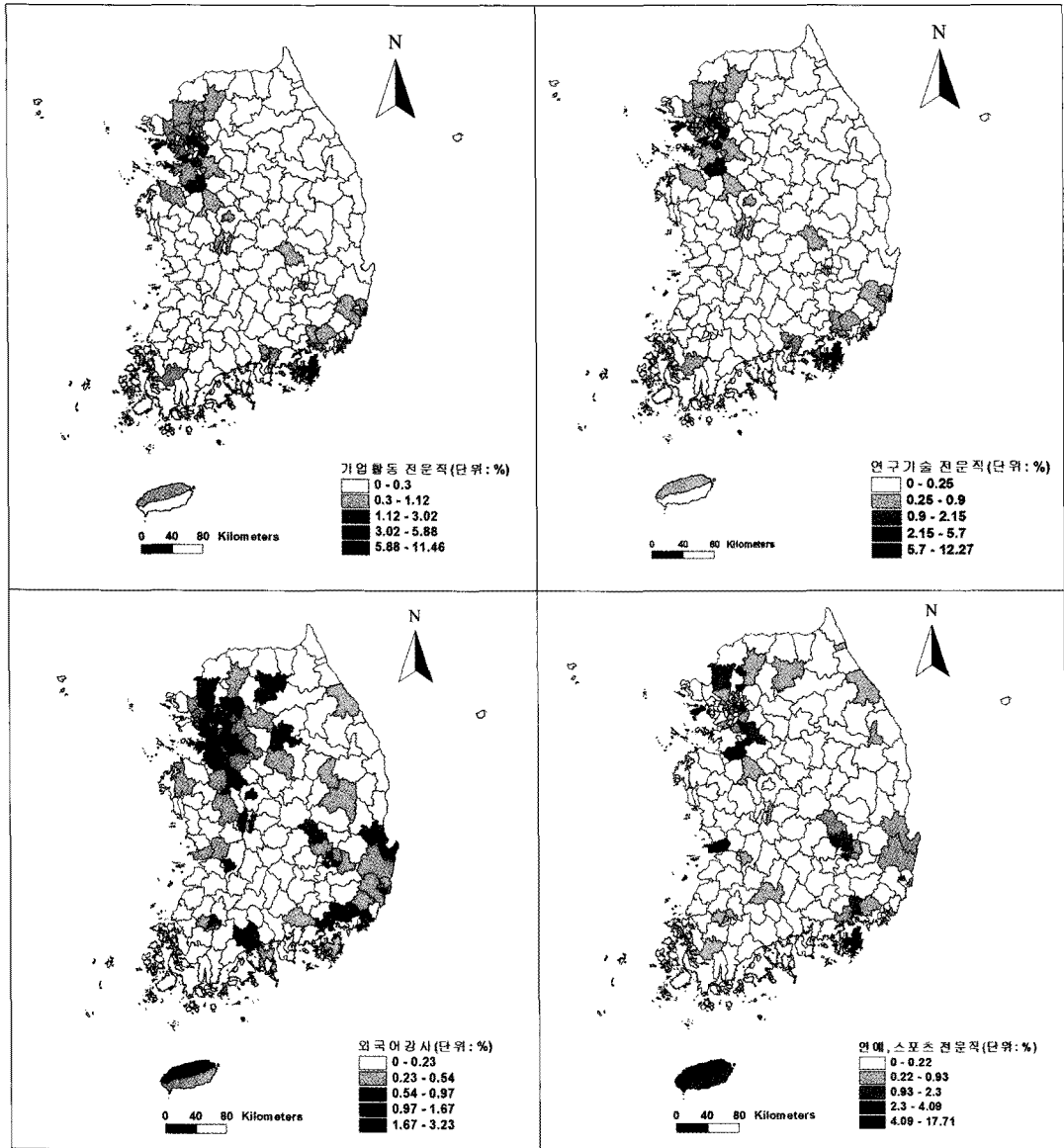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전문직 이주자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서울이 세계도시로서 고차

서비스 및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식기반경제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전문직 이주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다시 지역 차원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은 지구적 차원의 경제 재구조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등장, 세계도시 성장 등과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과정과 무관하지 않는 동시에 이들이 정착하고 생활하는 특정지역의 환경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대도시 내 전문직 이주자의 특성

2007년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sup>7)</sup> 수도권을 비롯한 6대 광역시 즉, 주요 대도시에서 분포하는 전문직 이주자의 현황과 출신국적을 살펴보았다. 출신국적은 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6).

예상한 바와 같이 전문직 이주자들은 주요 대도시 중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집중해 있으며, 다음으로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12월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그림 5. 전문직 이주자의 유형별 거주지 분포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광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전체 전문직 이주자 10,652명 가운데 92.1%에 해당하는 9,808명이 상위 5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5개국 모두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각각 1,000명 이상을 보이고 있다. 타 대도시의 전문직 이주자 전체의 수가 1,000~2,000여 명인 것과 비교해볼 때 출신국적별 전문직 이주자의 서울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한편 대구는 도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다른 대도시보다 비교적 작아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직 이주자의 유치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주요 대도시에 공통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전문직 이주자의 출신국은 영어권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이며, 이 밖에 도시별 상위 5개국 내에는 중국, 필리핀, 영국, 프랑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국내에 분포하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표 6. 주요 대도시의 전문직 이주자 출신국적(상위 5개국)

(단위: %)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광주
1	미국 (30.01)	미국 (22.00)	미국 (21.34)	중국 (17.87)	미국 (12.23)	미국 (24.48)	미국 (27.11)	미국 (21.13)
2	일본 (19.17)	필리핀 (15.12)	캐나다 (16.45)	미국 (16.16)	프랑스 (11.20)	중국 (18.43)	캐나다 (20.54)	캐나다 (17.35)
3	중국 (17.09)	캐나다 (13.53)	중국 (9.87)	캐나다 (12.78)	영국 (10.10)	캐나다 (14.92)	필리핀 (7.66)	중국 (16.67)
4	캐나다 (16.29)	중국 (10.27)	일본 (9.12)	필리핀 (7.53)	캐나다 (7.76)	오스트레일리아·인도 (5.57)	영국 (7.30)	일본 (6.19)
5	한국계 중국인 (9.52)	일본 (7.39)	필리핀 (6.89)	일본 (4.76)	필리핀 (6.94)	-	중국 (7.09)	필리핀· 남아공 (6.01)
전체(명)*	10,652	9,275	2,249	1,807	1,456	1,454	1,383	582

주: \*상위 5개국을 포함한 각 지역별 전문직 이주자 전체임.  
자료: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원자료(2007년 10월 12일 기준).

고 있는 전문직 이주자는 대체로 선진국에서 이주해 온 경우가 많다. 다소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필리핀 출신의 전문직 이주자는 주로 연예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IT 기술 향상으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인도 출신의 전문직 이주자들은 연구·기술 기관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대전에 분포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 5. 전문직 이주자의 적응과 정책

#### 1) 전문직 이주자의 적응과정

국내로 유입되는 전문직 이주자들은 그들의 국적에서부터 인종, 민족, 종교, 문화, 관습, 가치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한국인들과 상이하다. 각 개인마다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다양성들로 인해 전문직 이주자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주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적응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이들을 받아들인 국가 역시 어떤 형태로 이들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함께 살아가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어떠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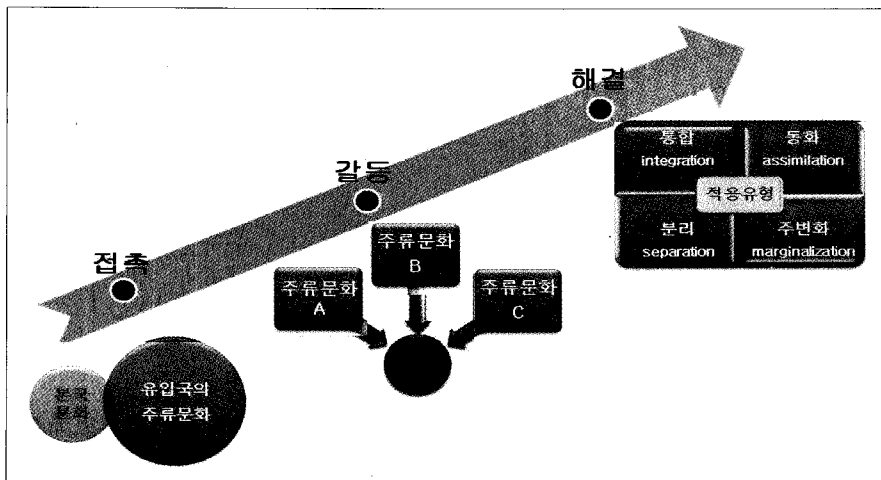


그림 6. 이주자의 적응과정

간에 이주자들은 그들이 이주한 주류사회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갈등을 겪게 된다.

Berry와 Sam(1997)은 이주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한 후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적응과정을 여러 변인들을 고려해 다차원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6>과 같이 적응과정의 최초 단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 문화가 만나는 초기 단계로서 이주자가 국내로 유입한 후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는 단계이다. 두 문화가 접촉되고 난 후 국내의 여러 문화들은 이주자에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 변화의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적응과정에 있어 갈등 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이주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를 택하게 된다.

문화적응 전략으로 동화란 자신의 고유문화를 버리고 주류사회로 흡수되는 것이고, 반대로 고유문화를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 것이 분리이다. 또한 통합이란 이주 국가의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주변화는 고유문화의 유지와 이주국 문화와의 관계 모두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Berry, 2005).

그러나 전문직 이주자는 적응과정에서 주류사회로 동화되길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는 이주의 목적이 일정기간 동안의 취업과 직결되어 있어 대부분 순환이주나 귀환이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근본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라는 점도 이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심층면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파키스탄 국적, 26세 남성, 2007년 기업투자(D-8)로 입국, 무역유통직 종사, 대구 거주

“나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네 주민들과는 인사만 할 정도이고 이야기를 하거나 친하지는 않다. 모임에도 가본적 없다. 하지만 한국인 사업가들과는 도움을 주고받는다. 앞으로 계속 산다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겠다. 외국인들과는 이슬람 사원을 통해 알고 지낸다. 이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생길 때는 주민들

이 반대했다. 체류기간이 끝나도 재입국해서 이 업종에 종사하고 싶다.”

[사례 2] 미국 국적, 32세 여성, 2008년 회화지도(E-2)로 입국, 외국어학원 강사, 대구 거주

“동네 주민들과는 잘 만나지 않는다. 학원의 동료들과 그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동네 이웃을 만들고 싶기는 하다. 나와 같은 나라 사람은 보통 다른 학원, 학교 강사 등이다. 주로 시내에서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다. 현재 체류기간은 1년인데 갱신해서 2-3년 정도 더 한국에 있을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한국에서의 강사 생활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재입국 의사는 없다.”

[사례 1]과 [사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과는 이슬람 사원과 친목 모임 등의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는 단절되어 있고, 한국인과의 교류는 직장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특히 [사례 1]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관계를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원을 통한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그리고 이들은 체류기간이 끝나도 재입국 내지 비자연장의 의사를 밝혔지만 귀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전문직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전부터 이주자들이 밀집되어 있던 주거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개인의 배경과 비슷한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거지 분화(segregation)를 이루면서 주류사회 속에서 고유의 커뮤니티를 형성·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가장 많은 서울에는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라 불리는 이주자들의 근린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 속의 아메리카인 이태원, 프랑스인이 모여 사는 반포동 서래마을, 일본인이 집단 거주하는 동부이촌동, 한남동의 '독일 커뮤니티' 등이 그것이다.

이주자들이 주거지 분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도시생태학자들은 주로 동화에 초점을 두고 이주자 또는 이주자 집단의 낮은 동화수준으로 인해 주거지 분화가 발생한다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설명한다. 한편 정치경제학자들은 인종·민족별 선입견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관행, 예컨대 주택 시장에서 이주자들이 집을 구할 때 가격과 이용가능성, 요구 자격, 정보 등에 대해 차별을 겪고, 결국 특정 도시공간에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저임금 이주노동자와 달리 선입견과 차별적인 관행이 적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비교적 높은 전문직 이주자들이 왜 지속적으로 주거지 분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주거지 선택에서 인종·민족별로 나타나는 선호를 강조한다.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이주자들이 단순히 문화·경제적 제한에 의해 분화된 거주지(immigrant enclaves)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종·민족별 선호도에 의한 커뮤니티(ethnic communities)를 형성한다고 본다 (Massey, 1985; Logan et al, 2002; Chung, 2009).

2) 전문직 이주자 관련 정책과 지원 기관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내국인 우선고용 원칙을 따른다. 이는 자국인으로 충원되지 못하는 노동시장 분야에 한해 최소한의 외국인력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외국인력 수입은 최후 수단인 셈이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주로 단순기능인력에 적용되고 있으며, 유치가 필요한 전문직 이주자와 관련된 정책들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입국 관련 제도로서 영주권 제도가 있다. 단순기능인력에 해당되는 이주자의 경우 국적취득이 불가능하지만 해외 투자자 및 교수, 연구자, 기업가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이주자에게는 3년 간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주(F-5)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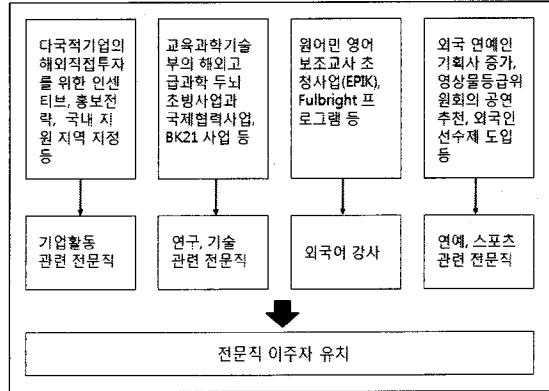


그림 7. 해당 분야별 전문직 이주자 유치 정책

2000년부터는 전문직 이주자들에게 정보통신부의 IT Card,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의 Gold Card, 교육과학기술부(구 과학기술부)의 Science Card를 제공하여 3년 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1회 체류기한 상환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심지어 배우자의 취업과 외국인 가사보조인의 고용도 허용하고 있다(강혜림, 2008; 문보국, 2008).

이러한 출입국 관련 제도 외에도 전문직 이주자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유치 정책들이 각 해당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림 7>은 전문직 이주자의 유형별로 유치정책을 분류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아우를 순 없지만 대체로 전문직 이주자들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홍보전략, 국내의 지원 지역 지정 등을 통해서, 연구·기술활동 관련 전문직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 사업(brain pool program) 및 국제협력사업, BK21 사업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표 9. 전문직 이주자 관련 주요부처 및 사업내용

소관부처	주요 사업 내용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고용지원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해외고급인력 도입사업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자료: 김남희, 2005.



문화적 상호교류에 대한 대응교육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EPiK)과 Fulbright 프로그램<sup>8)</sup> 등이 시행되면서 원어민 강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은 외국 연예인들이 국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계약을 담당하는 외국 연예인 기획사의 증가, 공연법에 의한 외국인 공연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스포츠 분야에서 외국인 선수제 도입 등에 의해 유치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은 극히 드물다. 외국인 이주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대개 결혼이주자 또는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부 위탁 지원기관과 민간 지원기관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만 전문직 이주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주로 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이다. 이 중 노동부와 법무부가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취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를 알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이다(김남희, 2005).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들조차 전적으로 전문직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보다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지원 사업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및 여행객 등 전체 외국인과 관련된 정보가 전문직 이주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뒤섞여 있어 효율적인 접근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이 전문직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지원 기관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실질적으로 전문직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곳은 이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고용기관에 그친다.

##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세계화 흐름 속에 전문직 종사자의 국제적 이동과 국내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전문직 이주자의

국제 이주 배경과 국내 유입 현황 및 공간적 분포, 적응과 관련 정책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 이주자의 국제적인 이동은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라는 거시적인 배경 하에 일어나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들 유형별로는 기업 국제화론과 두뇌유출론, 문화적 통합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은 다국적 및 초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뿐만 아니라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의 국제이주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은 고학력의 고급두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두뇌유출론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두뇌 유출이 아닌 고급인력 순환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전세계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외국어 지식의 수요 증가로 인해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과 원어민 외국어 강사 또한 국내에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문직 이주자의 이주 현황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장기체류자의 경우 2009년 현재 5만여 명에 이르렀다. 비자유형별로는 장·단기 체류자 모두를 포함해 2009년 회화지도(E-2)가 2만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과 2002년 6~7천여 명에 달하던 예술홍행(E-6)은 2003년 유홍업소에 종사하는 무용수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현재 4천여 명의 수준으로 정체되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예술홍행(E-6)의 불법체류율(31.2%) 또한 전문직 이주자 전체의 불법체류율(5.5%)을 훨씬 웃돌고 있어 최근 이들을 전문직 이주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성별 현황으로는 전문직이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남성의 비중이 대체로 높지만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은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출신대륙별로는 아메리카주계로 특화된 외국어 강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아시아의 비중이 높다.

셋째, 전문직 이주자들의 지리적 분포는 다른 외국인과 비슷하게 수도권과 영남권의 교통축을

따라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직업의 특성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은 수도권시 서울과 조선 사업이 발달한 거제, 울산 등지에,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은 대학과 연구소가 밀집한 수도권 및 대전 등지에, 외국어 강사는 교육기관을 따라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 연예·스포츠 관련직은 미군기지 주변 및 서울 유흥가에 주로 분포해 있다. 한편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내에 분포하고 있는 전문직 이주자의 수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광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출신국적은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 국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문직 이주자의 적응 및 정책과 관련해서 이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내로 이주한 후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되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인 지원기관과 정책들은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문직 이주자가 국내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유치 정책과 혜택이 주어질 뿐 정착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직 이주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치 정책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외향적 국제화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내향적 국제화를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내향적 국제화는 외국인 대책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외국인 친화적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의식과 생활양식, 제도관행까지도 보다 지구적인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양기호, 2006). 둘째, 전문직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원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에게 중복되고 과잉 제공되었던 많은 지원기관들을 전문직 이주자에게 돌려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적응 지원책들은 다문화주의를 가장한 동화주의로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주류사회에 편입되길 강조하기보다 그들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는 협력적 다문화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전문직 이주자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국내로 유입한 전문직 이주자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전문직 이주자에 관한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

- 1) 1992년부터 국내에서 부족한 단순기능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하였다. 산업연수생제는 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연수 후 취업자로 전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연수생으로 취업하는 시기에는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그간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단순기능인력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3년이라는 취업기간 제한과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 2) 2009년 현재 취업자수에 해당하는 장·단기 체류자 577,861명 중(단기취업(C-4)제외) 단순기능에 해당하는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는 모두 524,482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출입국 통계연보).
- 3) Guarnizo and Smith(1998)는 초국가주의를 위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above)와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로 구분하고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를 세계화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 4)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시공간 압축화의 진행은 지역 간 네트워크를 발달시켰다. 이들 네트워크는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장소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장소 간의 상호작용은 인구·정보·상품의 흐름으로 나타나며 흐름의 공간(spaces of flows)으로 해석되어진다(Castells, 1996).
- 5)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의 산업연수생제는 1년 연수(D-3, 산업연수비자) 뒤 2년 간 취업(E-8, 연수취업)하는 제도였다. 연수취업(E-8)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후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게 되었고, 연수취업(E-8) 자격은 삭제되어 현재 대부분이 체류일이 경과한 자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6) 2009년 현재 호텔유흥(E-62) 종사자 3,605명 중 남성이 538명, 여성이 3,067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85.1%를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출입국 통계연보).
-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별 현황자료에서는 지역별-국

적별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도시별-국적별 현황 분석에는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원자료(내부자료)를 사용하였다(2007년 10월 12일을 기준).

- 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English Program In Korea: EPIK)은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각각 주관 이 되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활용하는 프로그램이고, Fulbright 프로그램은 한미교육위원단이 미국 내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한국에서 6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그들이 근무할 학교 까지도 지정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제외하고, 학교 급으로는 초등학교를 제외시키고 있다.

## 문헌

- 강혜림, 2008,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44.
- 김남희, 2005, 국외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 문화.
- 문만용, 2006, 한국의 '두뇌유출' 변화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역할, 한국문화, 37, 229-261.
- 문보국, 2008,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 방향 -중소기업의 외국전문기술인력 유치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6.
- 법무부, 2007년 10월 12일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 원자료.
- 송하중·양기근·강창민, 2004,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두뇌유출 순환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2), 143-174.
- 양기호, 2006,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67-85.
- 이규용·박성재·김선웅·노용진·김재훈, 20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정책연구, 2005-10, 한국노동연구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년도(2000~2009), 출입국 통계연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6월, 출입국관리 법령집.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12월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12월 통계월보.
- 홍석준, 2004,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의 분절과 통합 -다문화주의와 '신민족주의'는 병존 가능한가?-, 인문학논총, 4, 205-222.
- Bailey, A., 2001, Turning transnational: Notes on the theoris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7, 413-428.
- Beck, U., 1997, *Was ist Globalisierung?*, Suhrkamp Verlag.
- Berry, J. W. and Sam, D.,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Berry, J. W. and Segall, M. H. and Kagitcibasi, C.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ume 3(2nd ed)*, Boston: Allyn & Bacon.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Canclini, G., 1995, *Hybrid Cultures: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 Minneapolis.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Network Society*, Blackwell, London.
- Chung, S.-Y., 2009, Neighborhood and Segregation in the Urban Theor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2), 103-118.
- Guarnizo, L. and Smith, M., 1998, The locations of transnationalism, in Guarnizo, L. and Smith, M.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3-34.
- Iredale, R., 2001, The Migration of Professionals: Theories and Typologies, *International Migration*, 39(5), 7-20.
- Johanson, J., and Vahlne, J. B., 1971,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Market Commi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23-32.
- Johanson, J., and Wiedersheim-Paul, F., 1975,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rm: Four

- Swedish Cases, *Th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October), 305-322.
- Logan, J. R., and Zhang, W. Q.,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99-322.
- Massey, D. S., 1985,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and Empirical Review,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9, 315-350.
- OECD, 1998, *Internationalization of industrial R&D: Patterns and Trends*, Paris.
- Park, D-H., 2008, Asia's Skills Crisis, in Asian Development Bank(ADB) (eds.),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8*, Manila: ADB.
- Robertson, R.,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 Yoon, I. J., 2008, Korea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the experience of Korean Chinese,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0(1), 1-18.
- 교신 : 송주연,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urbangeo@daegu.ac.kr  
Correspondence: Juyoun Song, Post-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urbangeo@daegu.ac.kr
- (접수: 2010.3.23, 수정: 2010.4.16, 채택: 2010.5.8)